



:삼수의 원리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15회>

인민군에 쫓겨 철조망 넘다 돌에 맞아 떨어졌지만

2절: 6.25전쟁 중에 있었던 무서운 연단

- 6) 총살당하다
- 7) 도구생활
- 8) 대동군 치안대장으로 추대되다
- 9) 신앙리 형무소에 재수감되다
- 10) 인고의 나날들
- 11)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
- 12) 반공포로를 식방하라
- 13) 석방 후 그리운 고향으로

11) 거제도 포로수용소 생활

일곱째 천사는 부산 가야 수용소에서 약소민족의 설움을 뼈저리게 맛보았습니다. 다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하였습니다. 국력배양에 젊음을 불태울 것을 가슴 깊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이를 갈아 부치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유엔군 총사령부에서는 상상 외로 많은 17만 명의 포로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포로 관리에 편리한 섬을 선택하였습니다.

전쟁 상황은 점점 불리하다는 소문과 함께 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일곱째 천사는 포로들과 함께 상륙함(LST)에 몸을 실었습니다. '오키나와로 간다, 하와이로 간다, 괌으로 간다, 바다에 몽땅 수장(水葬)시켜 버릴 것이다.' 라는 등 구구한 소리와 억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항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상륙함은 영화관, 교회 등의 시설을 갖춘 큰 군함이었는데, 5천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나무로 제조된 등근 밥통에 담겨 크레인에 의하여 밧줄로 위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단계를 걸쳐 배식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 동안에 배고픔을 참지 못한 많은 포로들이 일시에 몰려 그 큰 밥통에 매달려 손으로 밥을 퍼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약한 자는 밑에 깔려서 죽어가고, 힘이 강한 자는 밥을 실컷 먹는 일대 아쉬리장으로 화했습니다. 이때 밑에 깔려 죽은 자가 수십 명이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곳이 거제도였습니다.

도착한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포로들을 실은 상륙함이 닿을 내리며 정박하는 것을 보아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하10도의 추위 속에 벌벌 떨면서 배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배로 옮겨 타는 구름다리 바다가 얼어붙어 몹시 미끄러웠는데, 일곱째 천사 바로 앞에서 내리던 사람이 미끄러져 바다로 빠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구조할 생각조차 못하였었습니다. 참으로 포로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큰 배 밑에 떨어지면 배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을 잘 하는 자도 살아 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조짐조짐하여 구름다리를 건너서 작은 배로, 작은 배에서 육지에 도착해 보니 거기가 거제도 포로수용소였습니다.

우익 청년들을 학살하는 61포로수용소

일곱째 천사는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포로 아닌 포로로서 연단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2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논바다 위에 가마니를 깔고 그 위에 한 사람이 누우면 그 다음 사람은 발쪽에 머리를 두고 눕고, 또 바로 누우면 그 다음은 거꾸로 눕고 하여, 수백 명이 전부 옆구리가 가마니에 닿게 모로 누워 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담요를 한 장씩 덮고 잠을 자는데 몇 분만 지나면 체온에 의하여 얼었던 논바다가 녹아 축축한 물기가 가마니에 스며들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옷이 젖고 목이 젖은 땀만 아니라 옆에 누운 사람들의 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취와 추위 속에서도 군소리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최하의 밑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1개 수용소 포로 인원이 5천 명이었는데, 일곱째 천사가 소속된 수용소는 61포로수용소였습니다. 5천 명을 통



빨갱이들에게 쫓겨던 일곱째 천사는 철조망을 넘어 살 수 있었다. 거제 포로수용소 기생관에 전시된 철조망

술하는 통솔책임자를 뽑는데, 처음 50 명을 뽑는 중에 일곱째 천사가 뽑혔고, 다음 10명을 뽑는 데도 일곱째 천사가 뽑혔고, 나중엔 5명을, 다음은 2명을, 그리고 마지막 한 명에 일곱째 천사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5천 명을 울렸다 웃겼다 하며 손이귀에 쥐고 휘두르는 통솔책임자들 어떤 개인이 지명할도 아니고, 5천 명의 의사를 종합하여 투표와 거수 등으로 나이 스물일곱 일곱째 천사를 뽑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대학교수, 목사 등 사회에서 활약하던 지도급 인사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제치고 3년 동안 61포로수용소를 좌지우지했던 것입니다. 다른 수용소는 책임자가 몇 개월 만에 바뀌었지만 일곱째 천사가 맡은 61포로수용소만은 책임자가 2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61포로수용소 안에는 극력 좌익계에 물든 사람들이 많아 어느 수용소보다 우익계 청년들이 학살을 당하고 보복을 받으며 가장 곤욕을 치른 수용소였습니다. 수시로 빨갱이들이 난동을 일으키고 또 밤마다 인민제 판을 벌이고 우익계 청년들을 숙청시켜 토막을 내어 인분 운반통에 담아가 바다에 버리거나 땅을 파고 매장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도 모포로 뒤집어씌움을 당한 채 수십 명으로부터 발길질과 못매를 수시로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갈비뼈 하나 상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천사를 항상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골병이 들어서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용소 내에서 주도권을 잡은 빨갱이들이 태극기를 내리고 빨갱이 깃발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이 죽이는 처참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침내 수용소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미군들이 기관총을 난사하여 수많은 포로들이 총에 맞아 쓰러져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의 앞사람과 뒷사람이 기관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는데도 일곱째 천사 자신만은 총에 맞지 않고 상한 데가 없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를 제거하려는 인민재판

한번은 일곱째 천사가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조동지!, 조동지!” 하고 어깨를 흔들며 깨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벌떡 일어난 일곱째 천사는, “누구요?” 하고 묻자, “조동지 빨리 나오쇼.” 하며 팔을 잡아끌며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조동지! 빨리 다른 막사로 피하시오, 오늘 밤에 조동지를 1번으로 죽이게 되었으니 어서 피하시오.”하고 이복막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하고 일곱째 천사가 물으니, 그건 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전에 대동군 치안대장으로 있을 때에 왕벌 두 개짜리가 죽사 당하고 그다음에

내가 죽을 차례였는데 조동지가 총을 든 치안대원을 가로막고 극구 만류하는 바람에 살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인데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갚는 의미에서 알려주는 것이요, 그러니 생각을 고쳐 먹고 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오시오.”라고 말하고 어둠속으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빨갱이들은 우익 청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대동군 초대 치안대장을 지낸 바 있는 일곱째 천사를 제1차로 숙청 대상으로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일곱째 천사는 옆의 천막으로 피해 누워 있었는데, 잠시 후 큰 돌을 가지고 사람 머리를 찧어 죽이는 울타리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이 죽이는 처참한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침내 수용소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미군들이 기관총을 난사하여 수많은 포로들이 총에 맞아 쓰러져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천사의 앞사람과 뒷사람이 기관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는데도 일곱째 천사 자신만은 총에 맞지 않고 상한 데가 없는 것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지내는 동안 일곱째 천사는 배가 너무 고파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검정 솟을 발라 위장하고 식당으로 밥을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빨갱이 눈을 피하여 발각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식을 받는 차례가 되었을 때, 빨갱이에게 발각되어, “이 간나 새끼 잡아!” 하고 소리치자 친공(親共) 악질 포로 5명이 달려들어서 일곱째 천사를 잡아끌었습니다. 그리고 식당 옆에 있는 빨갱이 본부 막사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여 좌익청년들에게 잡혀서 빨

갱이 본부로 끌려가는데, 그들은 빨갱이 대장에게 “대장동무! 죽은 줄 알았는데 조희성 반공야새끼가 살아있어 잡아 왔습니다.” 하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빨갱이 대장이 “그놈은 독안에 든 쥐새끼니까 그곳에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빨리 이쪽으로 집합해!”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인지 하에 빨갱이들은 일곱째 천사를 내버려두고 돌아서서 건물 반대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며칠 전 밤중에 죽음을 피하게 해 준 음성인데다가 현재 취하는 행동도 도망가라는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일곱째 천사는 있는힘을 다하여 도망쳐 높이 막아놓은 철조망 하나를 기어올랐습니다. 3미터가 조금 되는 철조망을 필사적으로 뛰어 넘고 또 한 철조망을 넘는데 인민군 포로들이 “도망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와서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을 거의 올라갈 무렵 돌이 사정없이 날아와 어깨와 팔다리 그리고 등쪽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철조망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한 다리를 넘기고 뛰어 넘어려고 할 때 뒤통수에 돌을 정통으로 맞아 정신을 잃고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돌맹이에 얻은 맞은 상처가 일곱째 천사의 뒷목덜미에 흉터로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배수로로 굴러 떨어져 일곱째 천사가 보이지 아니하자, 인민군은 더 이상 돌을 던지는 것을 그쳤던 것입니다. 만약에 일곱째 천사가 떨어진 곳이 배수구가 아니고 맨땅이었다면 틀림없이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곱째 천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이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고비를 언제 어느 때에 맞이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 요모조모로 예비하시어 죽음의 함정으로부터 일곱째 천사를 건져내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박한수

영생의 도는 딱 21일만 제대로 하면 완성이 된다. 더도 덜도 없이 오직 21일이다. 21일만 부처님을 사모하고 놓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21일만에 성도하기’라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필자는 21일간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다. 그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주

누구나 다 사자마귀를 달고 다닌다

북방불기 3천년이 되면 미륵불이 세상에 나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태가에 갑을각(甲乙閣)이라는 승리제단을 설립하고 그 단상에서 설교하신다고 격암유록에 예언되어 있다. 아울러 산 속 절간에 있는 스님도 대중들의 삶 속으로 내려와야 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승리제단에 입문하는 새식구들 가운데에는 꿈에 미륵불을 친견하고 부처님이 지시한 대로 찾아온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새식구는 친히 미륵불의 분신이 앞장서서 이끄는 대로 따라 온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새식구는 지인(知人)의 전도를 받고 온 경우다.

어떤 경로로 왔는지 어떤 인연으로 오게 되었는지 부처님이 계시는 승리제단에 방문한 첫날에 예배를 보게 되면, 어느 누가라도 자신이 달고 다니던 사자귀신이 박살나 죽는 것이다. 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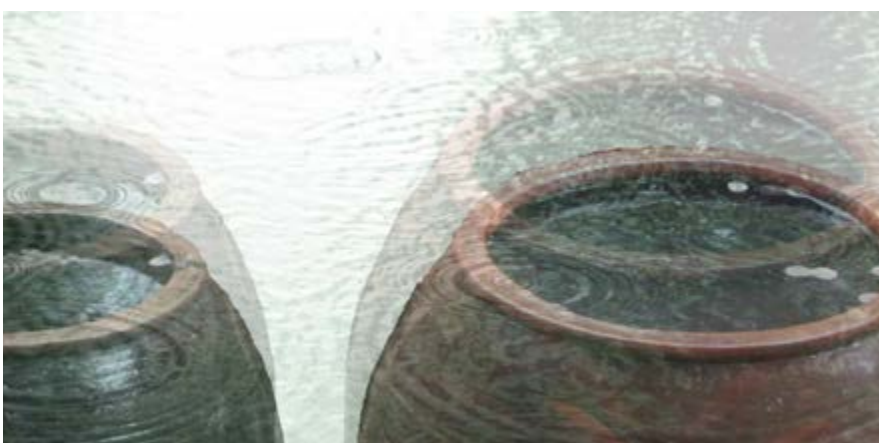
서 차사고로 꼭 죽게 되어 있는 운명에 처한 사람도 승리제단을 방문하고 부처님의 얼굴을 친견한 연고로 절대 죽는 일이 없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사자마귀가 되는 사망의 신(神)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인간을 죽음의 함정으로 몰아넣는지 영계(靈界)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 탓에 심지어 5분 후에 자동차에 치여 죽을 운명도 내다보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성불하신 부처님의 존영 사진을 지참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차사고로 죽을 일이 없고 지진이나 허리케인 같은 천재지변의 재난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다.

성불하신 부처님을 만나면 차사고로 죽을 일도 없고 병마에 시달릴 일도 없고 천재지변으로 죽을 염려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아무도 부처님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거나 꺼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승리제단에 겨우 2 일째 나오는 새식구 입장에서 부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부처님 앞에 못 나오게끔 방해하는 일들이 생김

21일 만에 성도(成道)하기 <2일째>



뚜껑 열린 장독에 빗물이 채워지듯이 마음 문을 열어야 감로를 받

새식구가 승리제단에 2일째 나오게 되+면 그 다음날 3일째에는 승리제단에 나갈 수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수십 년 동안 소식이 끊긴 채 지내던 초등학교의 단짝 친구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전화로 안부를 묻고는 집 근처에 와 있으니 만나자고 한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의 동창생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술까지 곁들여지게 되면 그 다음날 승리제단 가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해가 중천에 떠 때까지 숙취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승리제단에 나온 지 2일째 되는 어떤 새식구는 단테없이 유명한 회사에 취직시

켜주겠다고 내일 당장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는 제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을 것 같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게 되면 그 다음날 부처님이 계시는 승리제단에 가는 일은 팽개치게 되는 것이다.

또 어떤 새식구에게는 시집간다는 친구의 청첩장이 날아와 결국 승리제단에 오겠다는 선약을 포기하고 결혼식장으로 달려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며, 이밖에 어떤 새식구는 친척 가운데 갑작스레 초상이 나서 승리제단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긴다.

먼저 해야 할 일과 이중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줄 알아야

이렇게 승리제단에 처음 나오는 새식구들에게 평소에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원인은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 그대로 부처님을 만나 성불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구니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컨대 “죽은 이들의 장사(葬事)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라는 성경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진의(真意)를 정확히 풀어 주는 분은 미륵부처님밖에 없다. 부처님 입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므로 죽은 자를 장사지내는 사람들이 현재는 산 사람 같으나 결국 죽을 사람이니까 하나같이 ‘죽은 이들’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부처님을 만나 성도(成道)하려면, 불생불멸과는 상반되는 마구니의 유희를 과감히 잘라버리고 뿌리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불생불멸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면, 죽는 세상일보다 죽지 않는 부처님이 되는 일을 선호할 줄 알아야 분별력이 있는 현자라 할 수 있겠다.

마음 문을 열어야 부처님의 감로광명이 들어와 진리체로 화함

장독대의 항아리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와도 뚜껑이 닫힌 항아리에는 빗물이나 눈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와 같이 성불하신 부처님 앞에 와서 설법을 들을 경우에 마음 문을 열고 긍정적인 마음자세로 경청해야, 지혜의 신(神)이 되는 감로광명(甘露光明)을 받게 되어 마침내 혜안(慧眼)이 열리고 불생불멸을 논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무상무념(無念無想)의 상태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언제 1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환희에 넘치는 예배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본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피게 되는데, 이는 미륵부처님이 내리는 감로이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날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에, 사람을 접촉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류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되도록은 해자들을 가까이 하는 생활습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박태선 기자